



매디슨 한인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홍진국 클레멘스 (608) 231-2350

본당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연중 제 20 주일]

2009년 8월 15일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박환일 알렉산더, 정미영 율리아나

다음주 독서: 정종연 베드로, 이민선 데레사

이번주 복사: 신승원 로이, 이연재 마르코

이번주 미사 해설: 함승호 베네딕다

다음주 미사 해설: 전은숙 글라라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회 계: 정상혁 토마스 아퀴나스

친교실 정리: 4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 158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 분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 양지웅 라파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8월 28일) 저녁 7시, 사제관. [신부님]
금요교리: 신앙입문	격주 금요일 (8월 21일) 저녁 7시, 사제관. [신부님]
학부생 성서모임	추후 공지

† <오늘의 묵상>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너무나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성경 말씀이지만 거부감이 있습니다. 성체 신심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런 느낌을 가진다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반발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유대인들은 즉각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지요? 우리 역시 상식과 이해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인지요?

성체는 상식이 아닙니다. 성체는 신비입니다.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늘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다만 영성체를 통해 접근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접근은 하느님의 힘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영성체는 하느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남을 강조하시고자 ‘살과 피를 섞는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성체를 모셨습니다. 그때마다 살과 피를 섞는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성체를 모셨더라면 ‘그만큼 살아 있는’ 만남이 되었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르면 성체는 다만 작은 밀떡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모르면 ‘하느님의 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분께서는 ‘살과 피’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성체를 모시라는 당부입니다. 영성체는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을 모시는 행위입니다.

<제 1 독서> 잠언 9,1-6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술을 마셔라.>

<제 2 독서> 에페소서 5,15-20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화답송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 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주님을 경외하여라, 주님의 성도들아.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아쉬움 없으라. 부 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

○ 아이들아, 어서 와 내 말 들어라. 주님 경외를 가르쳐 주리라. 삶을 즐기고 복을 누리려, 장수를 바라는 이 누구인가? ◎

○ 네 혀는 악을 조심하고, 네 입술은 거짓을 삼가라.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 를 찾고 또 찾아라.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 알렐루야.

+ 요한 6,51-58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대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영성체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오늘의 성가] 시작: 22 봉헌: 214 성체: 160 파견: 241

† <생명의 말씀>

서로 밥이 되어 주십시오

안병철 베드로 신부 |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오늘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서로 밥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올림픽이 끝난 다음 해인 1989년, 우리나라에서는 참으로 은혜롭게도 제44차 세계 성체 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모여들었고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몸소 성체 대회를 주관하셨습니다. 세계 성체 대회를 준비하고 지내면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체성사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추기경님께서 우리의 고유한 문화적인 토양 위에서 성체성사를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서로 밥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의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서로에게 밥이 되어주는 성체성사적인 삶을 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셨던 것입니다. 추기경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성체성사의 의미를 살아가려는 신앙인들의 강력한 몸짓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역설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주셨지만 오늘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전 실존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십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이들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분 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한한 사랑의 성사에 초대받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복음에서 듣게 되는 ‘생명’이나 ‘머물다’ 또는 ‘다시 살리다’라는 용어는 우리가 향유하게 될 구원의 유익을 설명해 주는 표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체성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예수님께서 몸소 내어주시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은총의 순간이요, 기쁨의 장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눔의 심오한 신비가 극명하게 표출되는 성체성사 안에서 신앙인들은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체성사는 참 하느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와 만남을 이루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믿는 이들은 성체성사 안에서 그분을 만남으로써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전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신앙인은 그리스도로부터 살과 피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임을 자처하고는 있지만 과연 자신을 온전히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있는지요?

믿는 이들은 성체성사 안에서 어떤 식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에 기초한 나눔의 실천적인 삶은 성체성사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데서 구현됩니다. 자기의 배 속만을 채우려 하지 말고 오히려 밥이 되어주는 삶을 살라 하신 추기경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하게 껌전을 울리는 것이 과연 저 혼자만의 느낌일까요?

† <구역 소식>

- ❖ 박환일 알렉산더, 정미영 율리아나 가족 (지민, 지훈)이 오늘 미사를 마지막으로 우리 매디슨 공동체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이제 고국에서 새로운 정착을 하는 두분 가족께 주님의 은총과 보살핌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말씀의 향기>

‘성체’, 보약을 먹듯이...

방익수 사도요한

몇 달 전 조금 복잡한 사정으로 보약을 지어 먹은 적이 있습니다. 팔자에도 없는 호사처럼 느껴져 마음이 영 불편했지만, 마음보다는 몸이 더 불편한 터라 어쩔 수 없이 처방을 받고 약을 지어왔습니다. 부지런히 무엇을 챙기는 성격이 아니어서 이 약을 무사히 다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이번만큼은 잘 챙겨보자는 각오로 복용을 시작했습니다. 주의사항도 잘 지켜가며 굳은 마음으로 한 봉 한 봉 먹다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약효가 나타났습니다. 효과가 너무 좋아 아직 어린 나이인데, 약발(?)이 그렇게 쉽게 드는 것이 서글플 정도였습니다. 처음 걱정한 대로 지어온 약의 절반도 먹지 못했지만, 약에 대한 믿음이 그와 같은 큰 약효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약품의 의학적인 기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약효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위약(僞藥) 효과만 보더라도 그런 셈이지요. 약에 대한 맹신은 경계해야 할 일이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믿음이 없다면,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주 특별한 보약이 주어져 있습니다. 약효도 대단하여 단순한 건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됩니다. 게다가 값도 무료이고, 구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 ‘성체’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약의 효능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요한 6,55).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요한 6,58). 우리는 이 약을 미사 때마다 열심히 복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아무런 기대 없이, 복음적 삶이라는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성체를 모신다면, 그만큼 성체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성체를 영할 때마다 정성을 다해 믿는 마음으로 모시고, 그 힘으로 사랑의 삶을 살겠다고 굳게 다짐한다면, 성체는 우리 안에서 놀라운 효과를 드러낼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미사 중에 과연 어떠한 믿음과 기대로 성체를 모시고 있는지, 또한 그것을 위해 어떤 노력을 동반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